

허정숙 다시 보기 : 북한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신유리*·권경미**

I. 들어가며

북으로 간¹⁾ 여성 지식인 중 숙청되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이들이 많다. 하지만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1990년대까지 독야청청 전성기를 구가하며 살아남은 인물이 있다. 바로 허정숙(許貞淑, 1903-1991)이다. 그는 남과 북을 아울러 한반도에서 독보적인 방점을 남긴 여성이다. 신여성으로 알려진 허정숙은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변질할 때도 굴하지 않고 항일독립운동을 한 투사였다. 국외에서도 활동했던 그는 해방 이후 북으로 이주하여 살아남은 드문 여성

* 제1저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이화여대 스크랜튼대학 글로벌한국학과 교수

1) 외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경우를 입북(入北),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경우를 월북(越北)이라고 한다. 해방 이전 허정숙은 대부분 생을 한반도 이남에서 살았으나 독립 투쟁을 하다 중국에서 북으로 갔으므로 본고에서는 입북이라 기술했다.

권력자이기도 하다. 김일성과 같은 시기 항일독립투쟁에 매진한 이들 중 가장 오래 현역으로 살다간 여성 정치가로 북에서 발간한 『조선대백과사전』에 실린 주요 인물이다.²⁾

그러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보아서는 허정숙의 생애 전모, 특히 북에서의 면모를 소상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에 관한 연구는 사회주의자 인물 연구가 드물던 1990년대 초반 시작되었으나 특정 시기(주로 일제 강점기), 혹은 가족적 배경(허근욱, 1994)이나 여성주의(권수현, 2010; 김정일, 2003), 사회주의(서형실, 1992a; 신영숙, 1996, 2006), 기자 활동(강혜경, 2007; 김수자, 2015), 해외 체류(김성은, 2012; 우미영, 2003, 2018; 김정일, 2006) 등 세부 주제에 초점을 맞춘 미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³⁾ 허정숙의 초기 연구자인 서형실(1992b)이 생애시를 다루며 북한에서의 삶을 언급했으나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반도 이남에서의 허정숙 여성론을 분석한 권수현(2010)도 그의 북한 활동을 언급했으나 비중도 적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허정숙이 “가부장적인 북한 체제에 반평생을 보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는 순한 양”이 되어 이중적 모순을 보였다고 기술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 없이 북한 체제가 가진 한계를 개인의 한계와 동일시하며 허정숙을 김일성 체제의 반봉건성을 극복하지 못한 정체된 인물로 평가했다(권수현, 2010, 276).

기존 연구들이 미시적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북에서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은 결과, 허정숙이 여성운동 및 사회운동의 선구자 이론가였으며 북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음에도 남한에서 저평가되거나 다소 왜곡된 신여성의 이미지 위주로 남게 되었다. 그는 근대에 남·북한 교과서 정치 부문에서 모두 다룬 유일한 여성이었으나 현재 남한에서는 자취가 거의 사라지고 북한

2) 북에서 1964년부터 38년 동안 30권으로 발간한 대백과사전이다. 전 세계 5,200명이 수록됐으며 한국인은 1,500명이다.

강진욱 (2002. 1. 14). 북 조선대백과사전 전 30권 완간. 통일일보.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18>

3) 송진희(2004)는 허정숙의 생애를 다루었으나 입북 이전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에서만 중심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다(유지연, 2019, 11-12).

본 연구는 허정숙의 총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에 주목했다. 첫째, 허정숙은 시간의 마디에 따라 삶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입체적 삶을 살았다는 점이다. 입북 이전의 허정숙은 본인의 사상적 기반을 점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입북 이후에는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둘째, 허정숙은 여성으로서 북한에서 시대적·사회적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숙청에서 살아남아 죽기 직전까지 당의 핵심 인물이자 지도자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2장에서 입북 이전에 사상과 활동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3장에서 입북 이후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입북 이전은 의미 분석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4장에서는 허정숙이 최고 여성 지도자로 활동하고 북조선의 여성상으로 꼽힐 정도로 성공한 이유와 의의를 분석했다. 또한 성공의 의미를 허정숙 개인이 가진 사회주의나 여성주의 등 이상 실현 여부가 아닌 사회적 성공 입지에 올랐는가를 점을 중심으로 보았다. 전자의 경우, 성공에 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의미가 주관적이고 다층적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 가능하며, 아직 1차적인 관점에서의 조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요 자료로, 입북 이전은 식민지조선 시기에 그의 주요 활동지인 경성에서 발간된 신문, 잡지 등의 1차 사료 및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입북 이후는 북한에서 발간된 사료를 중심으로 허정숙의 활동을 추적해 보았다.

II. 입북 이전: 사회주의 항일투사로 성장하다

허정숙(許貞淑)은 1903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아버지 허헌(許憲)(1885-1951)과 어머니 정보영(鄭寶榮, 혹은 정금자)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고 알려졌다(서형실, 1992a, 100).⁴⁾ 민적상의 이름은 정자(貞子)이지만, 본인이 필명으로 쓰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쓰이던 호칭은 정숙이다. 조선교육협회 활동 당시에는 정자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기자 활동 이후 정숙을 주로 사용했고, 북으로 간 이후에는 정숙이라는 이름만 사용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란 허정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신식과 구식 문화를 모두 접할 수 있었다.⁵⁾ 우선 그의 아버지 궁인(靛人) 허헌은 보성전문학교와 명치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1907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판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함경남도 함흥의 갑부 경주 정씨의 후손인 어머니 정보영은 봉건적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의 슬하에 딸밖에 없어 자신 때문에 대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허정숙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에게 충실한 자유분방하고 감성적인 성격으로 신식 성향을 더 적극 수용했다(허근욱, 1994, 8).

남한과 북한 모두 허정숙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지만 남과 북의 자료가 내

4) 그러나 북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라홍숙 조원희, 2016, 107). 함경북도가 고향이면 허정숙의 입북은 단지 고향을 찾아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서울이 고향이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입북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각기 남·북한의 정권 입장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탄생 시기도 여러 설이 있는데 허정숙 본인의 진술과 여동생 허근욱(2001, 221)의 책에 의하면 1903년, 민적에 따르면 1904년, 북한 공식 기록을 보면 1908년으로 되어 있다. ‘1908년’은 해방 이후에 쓰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전 기록이 맞을 확률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1903년’이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카드번호: ia_6052)’에 기록된 법적 출생연도와 당시 신문에 기술된 허정숙의 나이와 일치한다. 여기에는 1903년 05월 20일, 경기도 개성부 임황면 조강리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ld=ia>

5) 친언니가 있었으나 일찍 죽어 혼자 남게 되었다고 한다. 후일 허정숙이 직접 아버지에게 소개한 동문 유덕희가 허헌과 재혼해 2남 4녀의 이복형제를 낳는다. 허근욱 (1994). 인물탐색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226.

용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았다. 특히 초기 기록은 남과 북이 상반된 자료가 많았다. 관점에 따라 인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자료를 비교하며 추적했다. 허정숙의 입북 이전의 행적은 남한 자료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남과 북의 기록 내용이 다른 경우에만 북한 자료를 인용했다.

20세기 초,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경성(서울)에서 자란 허정숙의 청년기는 사상적 성격이 점차 변모하는 허물벗기 과정의 연속이었다. 유학이나 투옥 등 삶의 큰 고비를 지날 때마다 허정숙의 사상과 실천 방향이 뚜렷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1910년대에 처음 신문물을 접하고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시기에는 기독교 중심의 계몽주자였다. 1920년대 초, 중국 유학 도중 사회주의를 접한 뒤로는 사회주의와 여성해방운동을, 중반에 미국을 다녀온 후에는 민족해방에 더 방점을 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해나갔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이 시작되고 국내에서 민족적 저항운동이 어려워지자 해외로 진출해 중국 등에서 10여 년간 무장독립투쟁을 이어나갔다. 2장은 허정숙에게 사상적으로 주요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전개했다. 허정숙에 관해 입북 이후보다 이전에 대한 연구가 많으므로 입북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세 시기를 중심으로 약술했다.

허정숙은 유학과 지식인이자 사상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신식 교육을 접했고, 일제의 눈을 피해 국어와 역사도 배웠다. 그는 15세에 배화학당에 입학하며 스승 김미리사를 만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 사상을 접했다. 이 시기에 허정숙은 시를 즐겨 읽는 문학소녀였으며, 1918년 신문사에서 주최한 시 경연대회서 입상하기도 했다. 배화학당 졸업 후 정숙은 일본 교토 평안고등여학원[京都 平安高等女学院]에서 1년, 1919년 이화학당 전문부 예과에서 1년을 보낸 뒤 일본 고베 관서학원[神戸 関西学院大学]으로 유학을 떠났다. 전공은 영문학이었다. 신호의 관서학원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신학교였던 탓에 자유분방한 그의 성미와 잘 맞지 않았다고 한다(서형실, 1992a, 201).

1921년 여름방학에 집으로 돌아와 김미리사의 추천으로 기독교계열 민족

주의 여성독립단체 중 조선여자교육협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허정숙은 일본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식민지 조선에서 인습 타파와 여자보통교육 보급 등을 주장하며 선전과 강연 활동을 펼쳤다.

1920년대는 ‘신여성’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신여성의 의미는 다양해 하나로 규정하기 쉽지 않지만⁶⁾ 공통 요소는 신문물을 배우고 이를 삶에서 실천한 여성이라는 점이였다. 일본·중국·미국·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유학하며 신문물을 배우고 이를 삶에 녹여낸 허정숙은 이런 맥락에서 ‘신여성’의 범주에 해당한다. 신여성의 개념을 연구한 김경일(2016)은 조선의 근대 여성을 시기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1세대 신여성은 계몽주의 엘리트, 이후의 신여성은 2세대로 성향에 따라 ‘민족·자유·급진주의’와 ‘사회·공산주의’ 그룹으로 분류했다.⁷⁾ 그의 구분에 따르면, 허정숙의 청소년기에는 1세대 계몽주의 엘리트 여성주의자들이 가진 성향과 유사했으나 사회주의를 접한 이후 2세대 신여성 중 ‘사회·공산주의’ 그룹으로 변모하게 된다.

중국 유학은 허정숙이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성주의자로 거듭나는 계기였다. 1921년 허정숙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상하이외국어학교를 다니며 사회주의를 접한다. 그곳에서 조선 사회주의자 삼총사(트로이카, troika)라 불리던 박현영, 임원근,⁸⁾ 김단아와 교류했으며 자신과 함께 여성 사회주의자 삼인방으로 불리던 주세죽과 단짝이 된다.⁹⁾ 1923년 중국에서 돌아온 후, 허정

6) 신영숙은 신여성을 “여학교를 졸업한 지식층 여성, 농촌과 노동여성으로 이뤄지는 광범한 대중여성”으로 구분한 반면, 최숙경·이배용은 “해외유학을 한 지도적 신여성” “문자해독 정도의 노동 신여성”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오숙희는 “지식인 여성 중 전통적 사고나 인습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지고 사회적 행동을 하는 여성”, 임옥희는 “근대적 제도교육을 받지 않아도 봉건 가부장과 단절할 수 있는 무/의식적 욕망을 가진 여성들을 총칭”한다고 보았다. 태혜숙, 임옥희 (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서울: 여이연, 79.

7) 1세대 신여성에 허란사 박에스타·차미리사 정월 등 엘리트 지식인, 2세대 자유주의 계열에 나혜석·김원주·김명순·김마리아, 사회주의 계열에 허정숙·유영준·정종명·정철성 등이 속해 있다. 김경일 (2016). 신여성, 개념과 역사. 서울: 푸른역사, 17-52.

8) 허정숙은 임원근과 결혼을 하고 1924년 딸 첫 아들 경환을 낳는다. 신영숙 (2006).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내일을 여는 역사, 23, 168.

9) 허정숙은 주세죽, 고명자와 일제강점기 시대의 여성 사회주의자 삼인방으로 알려졌다. 세 여성

숙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성해방운동으로 선회한다.

허정숙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이었으나 사상적으로 모두의 평등을 꿈꾸는 ‘사회주의자’였다. 남녀 간 불평등을 불편하게 여겼던 그에게 모두의 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사회주의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며 이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았다. 부유함을 개인적 안락에 쓰기보다는 사회주의 사회



<그림 1> 23세의 허정숙
출처: 許貞淑여사 아버지 許憲을 따라 서양만류, 1926. 5. 30. 동아일보, 3.

를 만드는 데 쓰길 원했고, 사회주의 여성단체 활동에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실질적 기둥 역할을 했다. 기자 활동을 하며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사회주의 운동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모자라는 자금은 집안의 물건을 팔아 보태기도 했다(허근욱, 1994, 223).

사회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사회주의자들도 많았지만 허정숙은 정치적 의식을 갖고 실천으로 나아가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동한 몇 안 되는 여성이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글로 써서 매체에 발표하거나 근우회 등 사회주의 단체에서 강연과 교육 활동 등을 펼쳤다. 3.1운동 이후 일본이 문화 통치를 표방하며 언론 검열이 느슨해진 시기, 허정숙은 중국 유학 동지들과 함께 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의 필진으로 활동했다. 1925년 민간 3대 일보 중 하나였던 『동아일보』¹⁰⁾의 최초 여기자가 됐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인 『신여성』으로 옮겨 2년 간 편집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허정숙(許貞淑)·허(許)·昌淑·貞淑·정숙 스카이·수카이·秀嘉伊·SKY·칠보산인 등 여러 필명으로

이 친하고 함께 활동하기도 했지만 박현영, 임원근, 김단야 사회중의자 삼총사의 부인들이란 의미에서 묶여 불리기 시작했다.

10) 허현은 김성수·송진우와 함께 동아일보 대주주였다. 1924년 박춘금 테러사건으로 김성수·송진우가 물러났을 때,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허근욱 (2001), 앞의 책, 383.

사회주의 사상과 여성 계몽운동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이화인 문과학원, 2016, 196; 김수자, 2015, 137; 이상경, 2010, 179). 당시 기자가 ‘무관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인정받는 직업이었던 까닭에 여성이 기자가 되는 것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부인(婦人) 기자’,¹¹⁾ ‘여류 작가’, ‘여류 문사’, ‘여류평론가’와 혼용해 부르기도 했는데 작가를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¹²⁾

또 허정숙은 여성만의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실제로 조직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1924년 2월 조선청년총동맹이 조직되자 허정숙은 5월 정철성·정종명 등 20여 명과 함께 조선 최초 여성사회주의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한 것이다. 섬유 등 근대식 공장이 늘면서 여성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여성 임금은 일본 남성의 15%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을 바라는 여성들의 운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였다(강인순, 2001, 32-52). 이 단체는 노선의 차이로 급진 사회주의 성향인 허정숙 중심의 경성여자청년동맹과 온건 사회주의 성향인 박원희 중심의 경성여자청년회로 분파가 나뉘었다가 좌우합작 운동을 하며 1927년 근우회로 재조직 되었다. 근우회는 1927년 2월 결성된 좌우합작운동의 결실로 만들어진 신간회의 여성단체 버전이라 볼 수 있다. 사회주의뿐 아니라 민족주의 단체를 총 망라해 50여 명의 여성인들이 참여했다. 허정숙은 근우회에서 중앙집행위원, 상무위원 및 서무, 출판 부장을 겸임한다. 좌우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근우회 잡지 창간호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여성들만의 조직체”가 있어야만 “여성대중운동의 사회적 각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¹³⁾

조선의 대표 여성 사회주의자로 성장한 허정숙은 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¹⁴⁾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호칭은 긍정

11) 일본어-중국어에서 ‘부인’은 여성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부인기자는 기혼자라기보다 일반적 여성을 뜻한다. 일례로 조선일보 최초 여기자 최은희는 1924년 기자가 되어 1930년 결혼했다.

12) 1920-30년대 여기자로 분류된 31명중 작가 활동을 겸하는 이는 13명이었다. 김연숙 (2011).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서울: 역락, 144.

13) 허정숙 (1929. 5. 10). 權友會運動의 歷史的 地位와 當面任務. 근우(1), 12.

14) 問題人物의 問題 朝鮮의 코론타이스트 許貞淑 (1932. 7. 15). 제일선, 2(6).

과 부정의 측면을 모두 가진 양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주의 선구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자유분방한 연애관을 비유한 표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허정숙은 일제 강점기에 세 번 결혼한 것 외에도 여러 염문(艶聞)¹⁵⁾으로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어 실상보다 부풀려진 오해를 많이 받았다.¹⁶⁾ 이러한 면모는 사회주의 여성해방이 성 해방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당시 풍조와 맞아떨어져 가십거리가 되었고, 이는 능력이나 사회주의의 실천보다 스캔들 위주로 허정숙을 평가 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그의 연애는 사상운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고 결혼과 연애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허정숙은 꾸준히 활동을 지속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허정숙은 1926년 6월 부친 허헌과 1년 반 동안 세계일주를 떠났다. 일본·미국·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스위스·폴란드·오스트리아·독일·러시아·중국 등을 함께 돌며 허헌의 통역을 맡았다(허근욱, 1994, 223).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미국으로 컬럼비아에 정착해 반년 간 머물며 사회주의와 여성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1927년 말 귀국했다. 남측에서는 허헌이 서양 재판과 정치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 갔다고 기술했으나¹⁷⁾ 북측에서는 1926년 5월 허헌이 국제법률가회의로 미국에 갈 때 허정숙이 동행했다고 기록했다.¹⁸⁾ 소련에서 작성한 『북조선정치활동가 평정서』의 ‘허정숙 개인카드’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갔다고 기록되었다(김광운, 2018, 741-742). 공

콜론타이(Alexandra Mikhailovna Kollantai, 1872-1952)는 세계 최초의 여성 외교관이자 사회주의 선구자로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에 참여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여성해방주의자이자 작가였다.

- 15)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으로 첫 남편 임원근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허정숙은 사회주의로부터 전향한 그와 이혼하고 송봉우와 결혼했다. 우미영 (2018). 근대 조선의 여행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270-271 참조. 그는 이후에도 신일룡과 동거, 최창익과 결혼을 하며 자유로운 행보를 이어갔다.
- 16) 장건상은 허정숙을 중국에서 함께 활동한 동지라고 여기기보다 “시집을 7번이나 간 여자”로 기억했다. 김학준 (2005). 혁명가들의 항일희생(개정판). 서울: 민음사, 253.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허정숙의 소문이 세간에 부풀려졌음을 알 수 있다.
- 17) 신영숙 (1996). 일제시기 여성운동가의 삶과 그 특성 연구. 역사학보, 150, 133.
- 18) 라홍숙 조원희 (2016). 앞의 책, 8.

적 목적을 가진 허헌의 외유에 허정숙이 동행한 것은 공통적으로 기술되었으나 북한에서는 가장 오래 머문 미국에 대한 내용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미국에서의 교육과 경험은 허정숙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와 여성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주 국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였다. 그는 나라가 먼저 독립해야 여성 해방도 가능함을 깨닫고 독립운동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귀국 후 사회주의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돕다가 1936년 중국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세계여행에서 돌아와 근우회 이론가이자 핵심축으로 활동하던 허정숙은 1929년 11월 발발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주도로 붙잡혀 감옥에 간 것을 기점으로 식민지 조선을 장기적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근우회 사건’ 혹은 ‘허정숙 사건’으로도 불린 이 사건은 34명이 구속되고 55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¹⁹⁾ 허정숙은 1년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되었고 셋째 아들 영한의 출산 때문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투옥되어 1932년 3월 출소한다. 이 무렵 나쁜 소식이 연달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머니와 둘째 아들 길한이 사망했고 대외적으로는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이 내려진 것이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사상범이 형기를 다 마친 뒤에도 보호사를 두어 거주와 여행 취직·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정책이었다. 투철한 활동가였던 허정숙의 입장에서는 눈과 귀 팔다리가 모두 잘린 형국이었다.

1934년 허정숙은 국내에 잠입했다가 검거 열풍으로 붙잡힌 의열단 교관들로부터 중국에 가면 항일무장투쟁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1936년 11월 무장독립투쟁을 위해 최창익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북에서 발간한 책 『민주건국의 나날에』(1986)에서는 허정숙이 김책²⁰⁾을 통해 조선독립의 위업을 성취하고 있는 김일성에 대해 들었으며, 몇 달 후 근우회 여성 지도를 구실로 용정에 가서 김책을 만나 항일무장투쟁 사정을 알아보려

19) 許貞淑以下八名 保安法으로 遂起訴 (1930. 2. 11). 중외일보, 2.

20) 김책(金策, 본명 김홍계)이 1927년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재판받으러 왔을 때 허헌이 변호했다.

했으나 실패했다고 서술했다.

허정숙은 중국 하얼빈에서 활동했던 남자현²¹⁾처럼 남성들과 함께 해외의 전장을 누비며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이어간 여전사가 되었다. 처음 남경으로 간 허정숙과 최창익은 김원봉이 속한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중국공산당 근거지인 화북의 연안지역으로 옮겨 활동했다. 1938년 최창익이 화북조선청년연합회(후일 화북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해 본인은 대표, 허정숙이 부대표를 맡았다. 허정숙은 특기를 살려 중국에 체류할 당시 『조선민족전선』과 『민족전선』 등 잡지 발행을 돕고 정문주리는 필명으로 조선학생 운동에 관한 글을 게재했다. 1940년에는 중국항일군정대학 7분교에 입학해 정치군사과를 수료하고 1941년 팔로군(八路軍) 120사단 정치지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 1945년에는 조선혁명군정학교 교육과장 및 독립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²²⁾ 무장항일독립투쟁에 참여했던 허정숙의 이력은 후일 북한 김일성 정권에서 자리 잡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III. 입북 이후: 최고 여성 지도자가 되다

입북 이전의 허정숙은 권력의 주변부에서 계몽주의·사회주의·여성주의·자주독립이라는 사상을 이론화하고 이념 운동을 했다면, 입북 이후에는 권력의 중심에서 대중에게 본인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허정숙의 입북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허정숙이 북에서 직접 집필한 『민주

21) ‘독립운동의 어머니, 여자 인종군’으로 불리는 남자현은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암살』(2015)에서 전지현 역할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이다. 만주 서로군정서에서 무장항쟁을 하던 남자현은 사이토 조선 총독 암살 시도로 유명하다. 항일투쟁을 했던 여성들이 희귀하게 느껴지는 건 그간 발굴이 적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전체 독립유공자 중 여성 2%이며 주요인물도 상당수 빠져있다. 정운현 (2016).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서울: 인문서원, 21, 41-51; 2021년 기준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인물은 16,685명이며 허정숙 허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국가보훈처 mpva.go.kr.

22) 강만길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서울: 창작과 비평사. ‘허정숙’ 참조

건국의 나날에』(1986), 『위대한 사랑의 력사』(1989) 등 2권과 허정숙 사후에 제 3저자가 쓴 2권 등 총 4권의 책을 중심으로 삶의 윤곽을 그려보고 『노동신문』·『민주조선』·『인민』·『조선중앙연감』 등 북한 언론 및 정부 자료와 허정숙의 동생들이 발간한 책으로 보완했다.²³⁾

허정숙의 저서들은 나이가 팔십 줄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에 출간되었다. 그가 인생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남긴 것은 자기 삶의 궤적이 아니라 김일성에 대한 회고록이다. 이 책에는 김일성이 북한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녀성들』(2016),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4』(2018) 등 제 3저자가 집필한 책들은 허정숙 사후인 2010년 이후에 저술된 근간본이다. 허정숙에 관한 단독 평전이 아니라 여러 위인을 묶어 펴낸 열전 형식을 띠고 있다.²⁴⁾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허정숙의 내적 변화에 초점을 두기보다 대외적으로 그가 어떤 인물로 비춰졌는지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1. 북에서 본 ‘조선 여성의 표상’

허정숙은 해방 이전 시작했던 사회주의 및 여성 운동을 입북 후에도 이어가며 북한 정권 초기부터 여성 권력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갔다. 허정숙은 1946년 문화선전국장장에서 시작해 1948년 9월 인민위원회 1차 내각 구성 시 문화선전상(文化宣傳相)에 임명되었다(김광운, 2003, 182). 그는 북한에서 최초로 첫 여성 상(相, 장관)에 오른 인물이자 세계 최초 여성 문화부 장관이 되었다(<그림2> 참고). 사회주의의 본좌였던 소련에서도 여성 장관을 임명하지 않던 시기였다.²⁵⁾

23) 차녀인 허근옥(2001)은 남한에서, 장남인 허영욱(2015)은 북한에서 아버지 허헌에 관한 책을 각각 저술했다.

24) 북한에서 발간한 책은 김일성이 태어난 해인 1912년을 기준한 주체년으로 기록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기력으로 바꾸어 기술했다.

25) 세계 최초 여성장관은 1918년 우크라이나 내무부장관 예브제니아 보쉬(Ecgenia Bosh, 1876-1925)이며, 한반도 최초 여성 장관은 임영신으로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상공부 장



<그림 2> 허정숙 화선전상
출처: 북한노획문서 RG242.
Box3 File No.200847.



<그림 3> 전국농촌민주조선
선전실장대회
출처: 민주조선 (1955.6.27).

해방 후 연안파 동지들과 북으로 간 허정숙은 1945년 12월 김일성과 처음 만나 중요한 일을 맡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당장 허정숙이 당기관지인 『정로(正路)』의 편집 작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²⁶⁾ 뿐만 아니라 그가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 참가해 회의에 관한 글을 쓰며 당 내부 형편과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를 알게 해주었으며, 평남도당대회 참가해 지방 당대회 자료를 종합하고 지방 당회의들의 지도성원으로 파견하는 등 지방 활동도 하도록 했다.

김일성의 신뢰를 받은 허정숙은 1946년 2월에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으로 임명 되었다가 1946년 11월 북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간부 부부장, 다음해 2월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국장²⁷⁾

관이 됐다. 그런데 북한의 초대 내각 발표가 남한보다 한 달 늦었지만 러시아 슈피코프 일기 1948년 8월 30일 기록에 북한 내각 구성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발표 시기가 다를 뿐 남북한이 비슷한 시기에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48. 8. 30). 해외사료 총서 10권 슈피코프일기 IV부 참고

출처: http://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fs_010r_0010_0040_0170

26) 조선로동당 기관지로 북한의 대표언론이다. 1945년 11월 1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로 시작해 조선신민당 기관지 『전진』을 흡수해 1946년 9월 1일부터 『로동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했다. 고유환 (2006).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선인, 24.

그리고 북한에 새 정권이 세워지던 1948년 9월 9일, 내각 구성원 중 한 명으로 문화선전상을 맡게 되었다.

북한의 건국 초기, 허정숙은 김일성으로부터 “조선의 녀성상”이라는 찬사를 듣는다.²⁸⁾ 이는 사회주의·여성주의·자주독립이념을 바탕으로 냉철한 이론가이자 동시에 투철한 실천가로 살아온 허정숙의 삶을 인정한 발언이다. 이후 허정숙은 지속적으로 북의 여성과 관련된 활동의 핵심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필요한 일꾼으로 활약했다. 1945년 11월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²⁹⁾ 창립 시 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1946년 8월에는 모스크바에서 국제민주여성연맹대회 사업에 참가하고 10월에는 체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대회에 여성동맹 대표로 참석해 ‘전 세계 민주여성들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 연설했으며, 1947년 책 『세계민주여성운동과 조선민주여성운동』을 편집했다.³⁰⁾ 1951년 3월에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대회에 참석해 유럽 여러 나라를 외유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남겼다.³¹⁾

27) 북한연구소 편 (1983). 北韓總覽 1945-1982. 서울: 북한연구소, 257. 최고인민위원회는 1947년 2월 최초 투표로 선출된 237명의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 중 22명을 추려 만들어졌다. 여성은 34명(15%)으로 직업별 구성에 넣지 않고 ‘여성’으로 분류했다. 허정숙은 평안남도 대의원이었다. 김광운 (2003), 앞의 책, 398-429.

28) 정권 초 “조선 녀성상”이라는 찬사를 받던 허정숙은 주체화 작업을 위한 숙청기간에 강등되기도 하나 1970년대 복권되며 지위를 회복한다. 라홍숙·조원희 (2016). 앞의 책, 121. 이 책에서 허정숙을 ‘조선의 녀성상’이라고 서술하며 “그때까지 쏘련도 그렇고 다른 형제나라들에 녀성이 상의 직무를 맡고 있는 나라는 없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보쉬가 세계 최초 여성장관이다.

29) 1945년 11월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을 조직하여 1951년 1월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첫 회의에 각급 여행조직의 53만 4천여 명 여성을 대변하는 131명의 대표들과 1천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김광운 (2003), 앞의 책, 203-206.

30) 허윤 (2019). 허정숙 편. ‘세계민주여성운동과 조선민주여성운동’ 해제. 근대서지, 2019(1), 535; 김은주 (2014). 한국의 여기자 1920-198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94.

31) 허정숙 (1951. 3. 22).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온 세계의 원조와 성원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노동신문, 1.

2. 숙청에서 살아남은 연안파

허정숙과 함께 북으로 넘어갔던 박헌영, 최창익 등 사회주의 동지들은 1950년대 초반 김일성과의 종파 분쟁에서 대부분 숙청되었다. 그러나 허정숙은 여기에서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아 정치적 장수를 이어간다.

북의 승리를 자신하며 시작했으나 실패로 끝난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 논쟁은 북의 종파 분쟁으로 귀결되었고 숙청의 피바람으로 이어졌다. 김일성 체제 성립은 동북항일연군(만주파·갑산파)이라는 소수 정치 세력이 국내파·연안파·소련파 등을 축출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해방 초기 정당성을 인정 받던 세력은 1920년대 조선공산당을 만든 이들이 모여 있던 국내파와 연안파였다. 국내파는 조선공산당 남로당파 거두인 박헌영을 중심으로 뭉쳤고, 허정숙이 속해있던 연안파는 무정·김두봉·최창익 등 경력이나 명망, 지력이 걸출한 인물이 많았다.³²⁾ 김일성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52년 12월 전쟁의 책임을 물어 부수상 박헌영과 그 일파들을 숙청한다.³³⁾ 1956년 8월 김두봉·최창익 등 연안파와 박창옥·김승화 등 소련파가 손잡고 김일성 정권을 전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결과 1957년 재무상이자 허정숙의 세 번째 남편이었던 최창익마저 숙청되고 만다. 김일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58년까지 계속 반대파를 숙청해나갔다.

허정숙은 1957년 10월 허정숙은 문화선전 일에 종파주의, 시대주의, 교조주의 사상이 침투됐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김은주, 2014, 95). 그러나 1957년 11월 사법상, 1959년 12월 최고재판소 소장 등³⁴⁾ 중임을 이어가며 숙

32) 김광운 (2003). 앞의 책, 182-183;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83; 육군사관학교 편 (1999). 북한학 (개정판). 서울: 박영사, 28-33·56-64.

33) 박헌영 사형의 집행은 1955년이었다고 알려졌다. 그의 죄목은 크게 3가지였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의 고용간첩이라는 것, 남한 내 민주역량을 파괴했다는 것, 김일성 정권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정권 전복 음모의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해도 평생 조국의 독립과 사회주의 정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박헌영이 이러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정권 다툼과 책임 회피를 위한 희생양이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34) 허정숙 개인카드의 출신성분에 ‘혁명적 법률가’라는 기록이 있다. 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청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온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그는 1960년 11월 최고 재판소장에서 해임되고 1961년 9월 4차 당대회 때 중앙위원에서 제명되었다. 북에서는 허정숙이 현역에서 내려가는 것을 종파주의로 인한 강등이나 숙청으로 표현하지 않고 “1968년 4월 61세에 년로보장으로 집으로 들어옴”이라며 노쇠해서 쉬었다고 설명했다(라홍숙 조원희, 2016, 140). 목숨을 잃는 비극은 피했으나 허정숙도 허무하게 저무는가 싶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숙청 기간 동안 오랜 동지들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휩쓸리지 않아 허정숙은 친(親) 김일성 파로 굳어졌고 예상치 못한 전성기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³⁵⁾

3. 최후의 무장투쟁 여성동지

보직 해제 4년 후 허정숙이 70세 되던 해, 김일성은 그를 다시 중앙으로 불렀으며 그의 여생은 이전보다 한층 더 화려해졌다.³⁶⁾ 1972년 7월 김정일이 직접 허정숙을 찾아가 살핀 뒤, 보직 임명과 함께 계절별로 7벌의 양복과 구두를 선물했다. 허정숙은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으로 돌아와 8월 남한 정세에 대한 성명서를 직접 발표하고 남북적십자회담에 참석할 정도로 대남 활동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이외에도 허정숙은 다양한 중역을 맡아 죽는 날까지 보직을 수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상설회의 부의장(1972년 12월-1982년 2월),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비서장(1975년 3월-1978년 12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1978년 8월-1991년 6월) 등 중책들이 그의 몫으로 돌아왔다.³⁷⁾

1. 서울: Korea Data Project, 741.

35)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하기 전 최창익·방창옥 등 연안파와 소련파의 쿠데타 음모를 감지하고 김창만에게 확인하게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허정숙을 김두봉에게 보내 확인했다고 한다. 이기하 (197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국토통일원, 628-634.

36) 백숙현(2020)은 허정숙의 복귀 시기를 1965년 9월 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에서 편찬한 책에서 1968년을 허정숙의 은퇴시기로 기술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했다.

37) 김성호 (2018).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4. 평양: 평양출판사, 4; 라홍숙 조원희

그의 정치생활의 정점은 1980년 6차 당대회 노동당 중앙위원 선출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임명이었다. 78세 되던 1981년 11월, 허정숙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직위인 당 비서가 되었다.³⁸⁾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도 당 비서 중 하나다. 다만 그들은 당 비서 중에서 우두머리라 ‘총비서’라 부른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비서국은 1966년 만들어진 조선로동당 사업의 실질 집행기관으로, 18개 전문부서 책임자 중에서 뽑아 겸임한다. 비서직을 맡는다는 것은 북한의 주요 결정을 함께 하는 핵심간부임을 뜻한다.³⁹⁾ “혁명의 수뇌부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전쟁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허정숙 비서밖에 없다”(라홍숙 조원희, 2016, 146). 1981년 11월 허정숙을 당비서로 임명하면서 김정일은 공식석상에서 그에 대해 찬사의 말을 한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까지 허정숙을 인정함으로써 그는 북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과거의 업적과 현재의 능력을 공인 받은 인물이 되었다. 이 시기 허정숙은 당비서와 중앙위원회 의장, 근로단체사업부장을 겸임(1981년 11월-1989년)했으며, 사망 전해인 1990년 조국통일상 첫 수상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1990년 7월 25일 처음 만들어진 조국통일상은 북한 최고 인민회가 남북한과 해외에서 민족 자주권과 자주 평화통일 실현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상이다.⁴⁰⁾

1991년 6월 6일 『노동신문』에 <그림 4>와 같이 허정숙의 부고 소식이 실렸다. 노동당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공동명의로 그의 부고를 발표했고, 장례는 이종옥 부주석을 위원장으로 장의위원회 31명을 구성해 7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그는 아버지 허헌과 함께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안치되었고 유가족에게 애국열사증이 수여됐다. 이후 김정일은 허정숙에 관한

(2016), 앞의 책, 133; 육군사관학교 편 (1999), 앞의 책, 663.

38) 애국열사릉 비석에 새겨진 허정숙의 직함은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다.

39) 김기호 (2013). 현대 북한 이해 (3판). 서울: 탐북스, 121; 육군사관학교 편 (1999), 앞의 책, 83-84; 정성장 (2011).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 301-303; 조정훈 (2016. 5. 16). 50년 뒤안길 노동당 비서국. 통일뉴스

40) 해방 45주년 계기 작년 첫 제정. (1991. 03. 12). 경향신문, 22.

내용으로 영화 『민족과 운명』 제17·18편 ‘허정순(허정숙)’을 제작하여 그를 기렸다.⁴¹⁾



<그림 4> 허정숙 부고 기사 출처: 노동신문 (1996. 6. 6), 3.

IV. 허정숙의 사회적 성공 요인과 의의

허정숙은 해방 이후 1991년 죽음에 이르기까지 45년간을 북한 최고위 지도층으로 살았다. 북으로 간 여성 지성인 중 허정숙이 돋보이는 점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던 정치적 숙청에서 살아남았고, 다시 당의 부름을 받아 죽는 날까지 주요 보직을 담당했던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재기용은 그가 김일성 정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1994년 사망했으므로 허정숙은 제1권력자 못지않게 장구한 세월을 정치 요직에서 함께 누린 셈이다. 4장에서는 앞서 다룬 허정숙의 삶을 바탕으로 그가 숙청에서 살아남고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와 의의를 분석했다.

41) 독립운동에 나선 허정순이 올바른 영도자를 만나지 못해 고품질 많은 인생을 살다 김일성을 만나 조국도 찾고 혁명에도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1992년 김정일 50회 생일을 기념해 시작한 이 시리즈는 북한 최고·최대 걸작으로 100편까지 만들 예정이다.
출처: NK조선 http://nk.chosun.com/bbs/list.html?table=bbs_27&idxno=3489

1. 사회적 성공 요인

1) 허정숙의 실력

허정숙이 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째 요인은 본인이 쌓아온 독자적이며 뛰어난 능력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로부터의 계몽, 여성 해방, 사회주의 실현, 조선의 독립 등 허정숙이 지향해 온 목표는 북한이 표방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바가 많다. 이 때문에 그가 북으로 가기 이전부터 본인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했던 여러 활동은 북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의 바탕이 되었다. 허정숙의 실력에 대한 인정은 김일성의 발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당과 혁명에 대한 입장이 투철하고 사업 능력과 경험, 군중의 신망이 있는 일군이면 비록 녀성이라 하더라도 책임적인 직무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며 허정숙을 문화선전상으로 직접 추천했다(라홍숙 조원희, 2016, 126-127).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허정숙은 고등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다. 당시 여성 중에서도 유학이나 고등교육 등 신식 교육을 받은 여학생은 전체 인구의 0.58%에 불과했다(태혜숙 외, 2004, 78-206). 이는 허정숙이 지도자로서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설 수 있게 해주었다.

여러 나라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어·중국어·영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능력도 뛰어났다. 이러한 점은 허정숙이 아버지 허헌의 세계여행에 동참하며 통역자로 간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북에서의 활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허정숙은 문화선전상으로 활동 시, 대외문화연락협회 위원장(1957.1-1960.12)을 겸임하여 해외 주빈이 내한할 때 직접 이들을 영접하는 역할을 맡았다. 1950년대 후반 북한 기사들을 보면 허정숙이 가까운 일본·중국·소련뿐 아니라 루마니아·이탈·알바니아·체코 등 다양한 나라의 주빈을 상대했음을 알 수 있다.⁴²⁾

42) 허정숙 문화선전상이 체코슬로바키아 인행극단 일행을 위하여 환송연 배설. (1955. 6. 20). 로동신문, 3; 허정숙 문화선전상 조선 방문 소련 문화대표단을 위하여 환송연 배설. (1955. 8. 19). 로동신문, 3; 알바니아 인민군협주단은 위하여 허정숙 문화선전상이 환영연 배설. (1955. 10. 28). 로동신문, 3; 허정숙 문화선전상 루마니아 <중달사> 가무단을 위한 환송연 배설.

더불어 입북 이전 『동아일보』나 『신여성』에서의 기자 활동과 조선여자교육협회나 근우회 등에서의 이념적 운동 등은 허정숙이 글과 말로 하는 설득에 능하게 해주었다. 이는 허정숙이 입북 초부터 출판·홍보·교육을 담당하고 고속 승진하여 초대 내각의 문화선전상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주었다.

2) 허정숙의 사상

허정숙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허정숙이 북을 택한 것은 계급 타파 남녀 평등 조선의 주체성 등을 이루고자 하는 신념에 바탕을 둔 선택이었고, 이를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정권과 적극적 협조를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인물이었다는 행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허정숙은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급진적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가로, 계급 철폐와 사회주의이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였지만 초기에 사회주의에 대해 잘 아는 지식인은 소수에 불과했고 허정숙은 여기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평등을 중시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여성해방은 누군가에게 빌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하며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 부인은 경제상(經濟上)의 독립을 얻지 못한 까닭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남자의 로예(奴隸)가 되어 버렸다”며 “해방을 찾거든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적으로 근본적 해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³⁾ 그는 “조선여성은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가련한 역사를 가진 인간”이라며 “조선의 여성은 경제적으로 무산계급에 속하였고 개성으로 보아 노예의 지위에 처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았다.⁴⁴⁾ 또 여성운동이 “근본적으로 들

(1956. 7. 26). 로동신문 3; 일본 무용가 이시이 바쿠 부부 허정숙 문화 선전상을 방문 (1956. 10. 17). 로동신문 7; 허정숙 (1959. 2. 12). 아랍땅에 꽃핀 친선의 예술. 로동신문 2; 중국 문화 대표단이 허정숙 위원장을 의례 방문 (1959. 2. 18). 로동신문, 5 등 (시간순 배열).

43) 허정숙. (1924. 11. 3.). 女子解放은 經濟的獨立경제적독립이根本. 동아일보. 4.

44) 허정숙 (1928. 1. 3-5). 婦人運動과 婦人問題研究 朝鮮女子地位는 特殊 1-3. 동아일보. 5.

어가서 경제적으로, 계급적으로 절실한 해방운동을 비롯하여 군과 같은 (전체가 아닌) 남성을 반역하는 운동에 이르러야” 한다고 지적했다.⁴⁵⁾

허정숙이 자발적으로 북한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입북 전후 미국과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서경석 외, 2007, 262-272). 그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다룬 글에서 “금전만능의 세계인 경제적 제국주의국가인 땅”에서 “프로(무산자)의 비애를 더 느낄 따름”이라고 기억했으며 이 시기에 미국에서 만난 한인들에게 실망을 느꼈다고 기술하고 있다.⁴⁶⁾ 1882년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조약 1조에 명시된 ‘영원히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기만적인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김성호, 2018, 9-10). 북한 건국 초에도 이와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 허정숙은 남한이 “일제 식민지 통치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 패망한 일제 대신 미제가 새로운 강점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라며 남한에 대해 구체적인 반감을 표현했다(허정숙, 1986, 16). 반면 허정숙은 북한 건국 초기에 김일성의 사상에 동조했으며 김일성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가 문화선전상을 맡았던 1940년대 후반은 김일성이 북한의 기틀을 마련하던 시기와 맞닿아 있다. 문화부 선전상이 하는 주요 업무는 “방송으로 반복하여 내보낼 뿐 아니라 강연, 해설 감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신년사의 원문과 거기에 담긴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의도를 광범히 침투 시키”는 것이었다.⁴⁷⁾ 그의 역할은 김일성의 의도를 나라 안팎으로 알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방향성을 만들기보다는 당에서 제시한 목표를 인민들에게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이

45) 수기이(허정숙) (1924. 10. 27). 新女性(신여성)들에게를 읽고(續). 동아일보, 6.

46) 허정숙 (1926. 10). 뉴욕통신 신여성, 4(10); 허정숙 저, 고한준 역 (2018).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서울: 두루미, 71-74 참고

47) 허정숙 (1986). 앞의 책, 11; 허정숙 (1949. 12). 공장, 광산, 기타 생산 직장에서 문화선전 교양사업 강화를 위하여. 인민, 4(12), 22-29; 김광운 (2019a). 북조선실록 35. 서울: Korea Data Project, 150-156.

를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허정숙의 주도적인 책임 하에 진행되었다.⁴⁸⁾ 선전상은 북한 체제의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가 수동적으로 체제를 수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말년에 남긴 저작들에서 건국 초기 기틀을 짜는 과정을 합리적이고 자랑스러운 논조로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허정숙이 이 체제에 자발적으로 동조했음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허정숙이 책에서 한 북한 체제에 대한 기술은 단지 김일성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꿈꿔온 사상과 체제, 그리고 자신이 구축하고 싶었던 이상적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김일성의 입을 빌어 정리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3) 허정숙의 상징성

허정숙이 성공한 세 번째 요인은 사회주의자로서 김일성처럼 해외항일 무장독립투쟁을 했던 여성 동지라는 독특한 입지다. 이는 허정숙이 말년에 재기해 최장수 여성 정치가라는 기록을 남기는 데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 여성이라는 희귀성은 그를 돋보이게 했고, 무장독립투쟁 이력은 북한 정권이 옛 천우를 지극히 생각한다는 당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적 존재가 되게 했다. 남자현(1872-1933)·박차정(1910-1944)·윤희순(1860-1935) 등 직접 전장에서 싸웠던 여성 중 해방 이후까지 살았던 이가 드물고, 정철성(1897-1958) 등 북으로 갔던 이들도 숙청으로 사라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초기부터 항일투사를 우대하고 친일파는 단호하게 배격하여 당의 정당성을 만드는 정책을 폈다. 정권 초기부터 혁명자유가족화원(만경대혁명

48) 1949년 10월과 12월 『인민』지에 실린 허정숙의 글을 보면, 문화선전부의 방향성과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선전사업은 “민주주의 사상의식으로 전체 근로인민들을 교양하며 자각적 애국심을 발동하며 제반 과업을 완수케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1) “국가의 법령 정부의 시책 및 중요한 결정을 전체 인민들에게 해석 선전”하며, 2)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 발전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들을 고무”하고, 3) “민족문화와 예술을 부흥 발전 시키고 선진적 문화를 수입하고 인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학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 항일투사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고 북한정권의 실세로 양성시켜왔다(허정숙, 1986, 225).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해온 허정숙은 이런 방향성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1946년부터 그는 북조선반일투사 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김광운, 2003, 221-222). 또한 북에서는 모든 인민의 평등, 즉 남녀평등 또한 강조하는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여성 활동을 독려할 인물이 필요했는데,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여성운동을 해온 허정숙은 역할모델로 적합했다. 이 때문에 그는 조선로동당의 여성단체의 주요 보직을 꾸준히 맡게 된다.

허정숙의 재기는 그의 상징성을 당에서 주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일성은 1967년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갑산파를 숙청하면서 당의 다원적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고 유일체제로 나아가고, 허정숙이 재기한 1970년대는 주체사상을 강화하고 김정일을 지도자로 세우는 기간이었다(안문석, 2016, 128-131). 이 시기 항일독립투사들의 공로에 대해 강조는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도 모두 북으로 데려가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고 새 조국의 토대를 닦는 데 일조한 허정숙은 ‘강인한 여성의 표상’이 되어갔다. 그가 함축하고 있는 ‘조선의 녀성상’은 아버지와 자식을 잘 보필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전통적 면모와 언제나 총을 들고 전장에 뛰어 들 수 있는 강인함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허정숙의 면모는 1940년대 북한에서 적극 활용했던 ‘총후부인(銃後婦人)’ 프로파간다(propaganda)와 잘 맞아떨어진다. ‘총후부인’은 총 뒤의 부인을 뜻하는 것으로 1930년대에 태평양 전쟁이 길어지자 남성들이 전장에 동원된 상황에서 여성은 후방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내조를 통해 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나온 개념이다(전경옥 외, 2011, 89). 북에서는 이를 차용해 여자들이 가정에서 여성 역할에 충실한 것은 남자들이 전장에서 총으로 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정치선전을 만들어냈다.⁴⁹⁾ 여성 역할을 가정 중심으로 강조한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현장에서 나가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어렵고 드문 일이었음을 동시에 보

여주고 있다.

1991년 6월 6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에서도 허정숙의 사회주의 동지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높이 평가하고 여성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의 첫 머리에는 허정숙이 “김일성 동지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한 생을 바쳐 싸운 녀성 운동가”이며 “녀성의 몸으로 장기간 이국땅에서 반일투쟁에 적극 참가”했다고 소개되었다.

4) 허정숙의 처세

허정숙이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네 번째 요인은 그의 처세이다. 그는 김일성과 권력을 두고 대척점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처세는 살기 위해 신념까지 타협하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정세를 빠르게 판단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긍정적 처세를 의미한다. 허정숙은 1925년 임원근이 사회주의에서 멀어지자 이혼을 감행했던 것처럼 자신과 견해가 달라지면 남편이나 연인이라도 가차 없이 헤어지는 과감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그가 연안파로 북에 발을 디뎠지만 곧 김일성을 지지하고, 이후에도 파당에 휩쓸리거나 지은 적이 없는 것은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 허정숙은 북으로 들어가기 전 중국에서부터 최창익⁵⁰⁾이나 무정과 이미 갈등을 겪고 있었고 입북 이후 바로 김일성세력에 합류한 것을 볼 수 있다. 연안파는 김두봉, 최창익, 무정 등 걸출한 인재가 많았는데 그게 오히려 약점이기도 했다. 이들은 입북 전부터 이론과 실천의 비중을 두고 의견차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⁵¹⁾ 입북 이후 허정숙 박일우·김창만 등은 조선공산당

49) 충후부인 프로파간다는 초기에 남녀평등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활용되었지만 주체사상 확립 이후 여성을 더 가부장제에 깊숙이 몰아가는 역할을 한다.

50) 허정숙과 최창익의 동거는 북으로 갈 당시 끝나있었다. 김은주 (2014). 앞의 책, 94.

51) 연안파는 내부에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없었으며 서로 반목했다. 1946년 7월 23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허정숙과 김용범은 무정의 모스크바 파견에 반대하는 모

북조선분국 즉, 김일성 세력에 합류했고, 김두봉·최창익·한빈·방우용·박표삼 등은 1946년 2월 조선신민당을 창당했다. 무정은 따로 창당을 하지 않았으나 김일성이 속한 만주파와 거리를 두었다(안문석, 2016, 130-133). 식민지 잔재 청산 친일분자 기업 국유화 토지 몰수와 경지유전 분배 등 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강령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다만 노동자·빈농을 중심세력으로 보는 조선공산당은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했으나 조선신민당은 중농과 도시 소시민, 인텔리를 대상으로 세력 확장을 노려 이에 반대했다. 허정숙은 연안파의 숙청 이전부터 연안파의 주요 인물들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던 데다 토지 분배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조선공산당과 뜻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허정숙은 박헌영이나 최창익 등 이전에 가까웠던 동지들이 숙청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전 남편 최창익을 비롯한 윤공흠, 서휘 등 연안파를 종파적 음모라는 이름으로 숙청하기 위해 열렸던 1956년 8월에 동참했다.⁵²⁾ 이 전원회의에서는 최창익을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명”하고 “내각 부수상의 직책에서 철직”하기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허정숙은 최창익을 공개 비판했다.⁵³⁾ 이런 모습은 허정숙의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비춰질 수 있었으며 이는 말년에 재기용되는 데 기여했다.

습을 보였다. 김광운 (2003). 앞의 책, 182-185.

52) ‘최창익·윤공흠·서휘·리필규·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행위에 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8월 30일-31일)’. 국사편찬위원회 (1998). 北韓關係 史料集 3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784-789.

53) 해외로 피신한 이를 제외하면, 김일성은 허정숙을 뺀 연안파 전원을 숙청했다. 육군사관학교와 남기봉은 허정숙이 살아난 이유가 이 당회의에서 허정숙이 김일성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편 (1999), 앞의 책, 62; 남기봉 (2017). 북한학. 인천: 진영사, 71-77. 한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소설 『세 여자』에서는 이들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허정숙이 동지들의 숙청을 묵인한 것으로 묘사했다. 조선희 (2020). 세 여자 (특별판). 서울: 한겨레출판, 884-903.

5) 허정숙의 가족적 배경

허정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요인은 허헌·허정숙 부녀와 김일성의 인간적 친교가 깊었다는 점이다. 허정숙 부녀에 대한 김일성의 신뢰는 허헌과 허정숙의 오랜 항일투쟁에서 비롯됐다. 남북 모두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자 김일성이 아끼는 존재였던 허헌은 허정숙이 처음 북에서 입지를 다질 때 힘이 되어주었다.

김일성은 “허헌 선생이 자진하여 법정으로 나와 그(김책)에 대한 변호를 맡아 해 준 것은 혁명가들에 대한 동정과 지지 없이는 감히 별될 수 없는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칭찬했으며, “기사를 통해 동무네 부녀가 한 투쟁대오에서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허정숙, 1986, 11). 허헌 집안은 1927년 김책이 경성에서 수감생활 할 때 옥바라지를 정성스레 했을 뿐 아니라 1929년 말 출옥 후 허헌의 변호사 자격 박탈로 생활고에 시달렸음에도 김책이 간도 지역으로 떠날 때 물건을 서당 잡히고 법전까지 팔아 경비를 내준 바 있었다.

허헌은 남한에서 반대파들에 의해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차에 남북연석회의 참석하러 평양에 왔다가 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입북한다.⁵⁴⁾ 김일성은 1945년 12월부터 허정숙을 통해 허헌에게 북으로 오라고 편지를 쓰게 하고 본인도 직접 쓰는 등 허헌이 북으로 오길 요청하는 상황이었다(허정숙, 1986, 15). 북으로 온 허헌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북한 최초 최고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는 등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는 오래 활동하지 못하고 한국전쟁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평북 강계에서 피란 중이던 그는 1951년 8월 16일 김일성대학이 임시 개교하자 그곳으로 가다가 거친 풍랑에 뗏목 밧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김일성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헌의 시신을 찾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으며 관을 옮길 때 직접 온

54) 허헌은 여운형, 백남운, 이강국 등과 함께 좌측 대표로 참석해 좌우합작기구가 정식으로 세워 지고 7월 25일 1차 회의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송건호 외 (2004). 해방 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433-436; 정병준 외(2018). 한국현대사 1. 서울: 푸른역사, 102-127.

구를 도왔다고 한다.⁵⁵⁾

2. 사회적 성공 의의

1) 정치적 측면

허정숙은 김일성 가계의 일원이라거나 누군가의 부인 등 보조자로서가 아닌 본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최고 권력에 올랐으며, 모양 좋게 자리만 채운 게 아니라 당대에 힘을 가진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북한에서 여성으로서 정치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김일성 일가의 일원인 경우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김일성 가계의 이상화를 위해 ‘지원의 총’으로 칭송됐던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과 ‘항일의 조선 영웅’으로 불리던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중심으로 여성상을 만들어왔으며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강반석과 김정숙은 여성상의 지표로 여겨졌다. 북한 체제는 강반석 강습회를 운영하거나 김정숙 과목을 교육과정에 넣는 등 적극적인 이상화 정책을 시행해왔고 1998년과 2005년 두 차례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강반석 따라하기’ ‘김정숙 따라하기’ 같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⁵⁶⁾ 최근에는 김일성 주석의 딸이자 노동당 비서인 김경희, 김정일의 딸 김설송과 김여정, 그리고 김정숙의 부인 리설주 등이 북한의 대표 여성상으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⁵⁷⁾

김일성 일가가 아님에도 허정숙과 같이 당 비서에 올랐던 예외적인 여성으로는 박정애를 들 수 있다.⁵⁸⁾ 그의 남편 김용범은 1945년 조선공산당 북조

55) 김일성의 허 부녀에 대한 극진한 대우는 이외에도 여러 일화가 있다. 허정숙의 지병이 도지사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준다거나 정숙의 아들이 결혼할 때 직접 선물을 챙겨준 것은 인간적 친밀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56) 권금상 (2018). 북한 여성과 문화연구. 문화과학, 96, 76-91; ‘강반석 강습회’, 손봉숙 (1982).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4(3), 233; 유지연 (2019). 앞의 글, 6.

57) 조태성 (2018. 12. 30). 희생보단 주체로... 리설주·김여정은 북한의 달라진 여성상. 한국일보.

58) 1-3차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된 여성은 박정애와 허정숙뿐이었다. 박영자 (2017). 북한녀자. 서울: 엘피, 482; 남기봉 (2017), 앞의 책, 58-61.

선 분국 책임비서로 해방 당시 김일성의 상급자였던 거물이었다. 박정에 본인 역시 초기 내각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위원인 허정숙보다 지위가 높았다. 그러나 그는 허정숙과 달리 1965년 숙청되어 정치의 중심에 오래 있지 못했다(손봉숙, 1982, 237).

위의 사례에서 보듯, 김일성 일가 이외의 여성이 정치의 핵심세력으로 정치 생명을 오래 이어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허정숙은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북한 초기 집권부터 주요 간부로 시작해 삶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심 인물로 남은 유일한 여성이 되었다. 허정숙은 5·6차 상임위원회의 의장단으로 활동했으며, 6차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어 여성 중 최다선 의원이었다. 6선 이상 대의원이 된 31명 중 1기에 대의원이 되었던 허정숙, 박정현과 최광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은 모두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등장하였으므로 허정숙은 여성위원 중 가장 오래 정치활동을 한 기록을 남겼다(이주철, 2001, 264).

2) 사상적 측면

허정숙의 행보를 보면, 김일성이 허정숙을 내각의 일원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허정숙 역시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김일성 체제를 선택하고 이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허정숙이 정치적 성공이 체제에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수동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허정숙은 시대의 흐름을 먼저 간파하고 이에 맞춰 대처했던 인물이라 보아야 한다.

해방 이전 허정숙은 이미 여성 사회주의 사상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가 북을 택한 것 역시 그가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주의 및 남녀평등이라는 본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행을 스스로 택했고, 자신의 힘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전략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실천할 여지를 마련해 갔다.

사회주의 사상은 식민지 시대에 자유주의와 함께 한반도를 풍미했던 이념

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냉전 이후, 남한에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자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타부 시 되거나 이념전의 도구적 성격을 띠었다. 또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김일성 세습체제의 부속품처럼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복으로 간 사회주의자에 대한 연구는 그간 한반도에 존재하지만 외면했던 사회주의의 실체와 영향을 추적하는 실마리가 되는 한편, 개인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직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구조주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의미를 재해석하는 갈등주의적 시각에서도 볼 때,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택한 각각의 노력들이 체제를 만드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되어 갔는지 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젠더적 측면

허정숙은 한반도의 여성사 이해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물이다. 그는 해방 이전 근우회를 통해 신여성의 지향점을 담은 이론을 만들고 여성운동을 주도했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조선 여성의 역할모델이자 표상으로 인정 받는 이로 성장했다. 허정숙의 여성운동은 북에서 계속 이어졌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명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허정숙이 재기한 1970년대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의 유일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이 시기는 제한적 다원성마저 소멸된 시기⁵⁹⁾였기 때문에 허정숙의 활동은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체제 내에서의 활동만 가능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은 이전 시대와 비교해 큰 진전이 있었다.⁶⁰⁾ 국가 건설에 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해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우선과제로 두었기 때문이다(한성훈, 2012, 369-376).

59) 북한연구학회 (2016), 북한의 정치2. 서울: 경인문화사, 347-348.

60) 1953년 북한의 남녀평등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여성의 군사교육 참가 2.여성의 중노동 3.여성의 입후보 4.투표 참가 5.교육 기회 부여 6.여성 기관사와 운전사 배출 7.여성 군인 활동 8.여성의 사회 활동 9.여성 간부 10.발언 가능. 박영자 (2017), 앞의 책, 471.

북한 초기 내각의 여성 정책을 보면, 허정숙이 북으로 가기 전 주장했던 여성의 남성과 동일한 주체성 인정⁶¹⁾, “경제의 독립과 해방”⁶²⁾, “여성들만의 조직체”⁶³⁾ 등의 내용들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은 건국직후인 1947년 7월 30일 ‘북조선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공포했는데 1조는 남녀의 평등권·2조는 노동권·3조는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박영자, 2004, 203-313).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 여성의 대의원 비율은 첫 지방선거였던 1947년 13%에서 1957년 25%로 향상되었다. 또 여성 노동 참여율은 1956년 20%에서 1976년 48%로 늘었다.⁶⁴⁾ 여성들만의 전국적 조직도 꾸려 여성만의 조직제도 운영했다. 1945년 11월 40만 조직원으로 창립한 전국 단위의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은 1960년대 220만 명으로 꾸준히 성장했다(조선중앙통신사, 1961, 49).

당시 남한에서는 분단 이후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금지되며 식민지 조선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여성운동, 진보적 여성운동이 단절된 상황이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좌익단체들은 불법화되고 우익단체인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및 애국부인회 등이 통합되어 대한부인회로 결성되었고, 여성단체들이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가부장제 전통을 지지하여 제도·문화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정체되었다. 이후에도 가부장적 국가주의를 모델로 삼는 박 정권의 장기 집권을 지지하여 여성운동의 암흑기가 지속되었다(이효재, 1985, 310-319).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군사 문화와 수령 체제로 전 사회가 위계적으로 재구성 되며 남녀평등 정책은 역행했고, 남한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 되며 여성 운동 또한 괄목할 성장을 거두어 현재는 남북한 여성

61) 허정숙 (1928. 1. 3-5). 婦人運動과 婦人問題研究 朝鮮女子地位는 特殊 1-3. 동아일보, 5.

62) 허정숙 (1924. 11. 3.). 女子解放은 經濟的獨立경제적독립이根本. 동아일보, 4.

63) 허정숙 (1929. 5. 10). 權友會運動의 歷史的 地位와 當面任務. 근우(1), 12.

64) 조선중앙통신사 편 (1961). 조선중앙연감 196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16; 위대한 수령남에게서 마련하여주시 남녀평등권 발표 30돐 기념보고회에서 한 김성에 위원장의 보고 (1976. 7. 30). 노동신문, 3.

의 위상이 반대가 되었다. 그러나 분단 이후 북한에서 초기 여성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초기 여성운동가로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던 허정숙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에서 잊혀진 여성의 목소리를 찾고 그 의미를 현재로 가져오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역사적 측면

입북 이후 절반의 삶에 대한 고찰 없이 허정숙이란 인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임의로 인간이 땅을 오가지 않을 순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다고 해서 한 인물의 인생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 교류의 단절로 허정숙이 북으로 간 이후의 기록은 찾기 쉽지 않지만 그의 삶은 그곳에서 계속 이어졌다.

한 세기 가까이 이어져온 허정숙의 삶은 그 자체로 한반도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그의 삶 속에는 식민지 조선에 불었던 계몽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여성주의, 민족자존주의 바람들이 그대로 녹아 있으며 분단 이후 우리가 조명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면모들 또한 담고 있어 한반도의 현대사를 온전히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북한이 내각 초기부터 여성을 수용하려 시도한 점, 김일성 중심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감행된 점,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왔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남한과 북한에서 허정숙에 대한 기록이 각각 정권에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사실 여부를 다르게 기술했음을 비교함으로써 역사를 단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V. 나가며

남에서 절반, 북에서 절반을 살았던 허정숙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한 세기

를 풍미하며 살았던 여성이다. 비주류로 혁명을 꿈꾸는 운동기였던 이남에서의 활동과 달리 입북 이후 허정숙은 내각의 핵심이 되어 정책적으로 이념을 실현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삶은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입지전적 성공을 이룬 여성, 이상향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사상가, 자신의 삶을 통해 남녀 차이를 극복한 실증적 사례가 된 역할모델, 분단을 넘어서 한반도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투영한 실증적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미시적으로 허정숙이란 인물의 삶을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북으로 간 이후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을 통해서 단절된 한반도의 20세기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작은 창이 될 수 있다. 당대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런 작업은 현시점의 남북 문화 괴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허정숙의 입북 이후 삶을 들여다본 자료들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데 있다. 특히 주체사상 확립 이후 편찬된 자료들은 당의 입맛에 맞게 검열·편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연구는 허정숙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기에 각 영역에서의 면모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는 다이나믹하고 입체적인 면모를 가졌으며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을 산 인물이므로 자료 발굴 여부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서 심층연구가 가능하리라 사료 된다. 본고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른 인물을 기준으로 허정숙의 성공에 대해 기술했다. 그러나 허정숙이 활동했던 각 영역에 따라 그의 성공이나 역할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는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허정숙이 입북 이후 갑갑함을 느꼈을지, 말년에 쓴 저작이나 편지처럼 그가 함께 만든 세계에 대한 감사가 더 컸을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았다. 차후, 허정숙에 관한 북한 및 해외 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못 다룬 궁금증을 풀 수 있길 기대한다.

[주제어] 허정숙, 신여성, 사회주의자, 북한 여인상, 북한 정치 지도자

[참고문헌]

- 강만길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강혜경 (2007).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81-117.
- 강인순 (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파주: 한울.
- 고유환 (2006).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선인.
- 국사편찬위원회 (1998). 北韓關係史料集 3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1999). 北韓關係史料集 31 : 正路(1945.11.1.-1946.5.19).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권금상 (2018). 북한 여성과 문화연구. 문화과학, 96, 76-91
- 권수현 (2010). 허정숙의 여성론 재구성. 페미니즘 연구, 10(1), 247-283.
- 김경일 (2003).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한국문화, 36, 249-295.
- 김경일 (2006).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1, 45-91.
- 김경일, 김성은, 김은경, 신영숙, 정현주, 이상경, 박정애 (2015). 한국근대여성 63인의 초상.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경일 (2016). 신여성, 개념과 역사. 서울: 푸른역사.
-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1: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 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1. 서울: Korea Data Project.
- 김광운 (2019a). 북조선실록 33. 서울: Korea Data Project.
- 김광운 (2019b). 북조선실록 35. 서울: Korea Data Project.
- 김기호 (2013). 현대 북한 이해 (3판). 서울: 탐북스.
-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200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서울: 웅진닷컴.
- 김성은 (2012). 1920-30년대 미국유학 여성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전공.
- 김성호 (2018).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4. 평양: 평양출판사.
- 김수자 (2015). 1920-1930년대 신여성 여성기자의 여성담론 구성방식. 한국근현대사연구, 74, 127-155.
- 김연숙 (2011).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서울: 역락.
- 김은주 (2014). 한국의 여기자 1920-198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학준 (2005).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개정판). 서울: 민음사.
- 나혜석 저; 서경석 편 (2007). 신여성, 길 위에 서다. 서울: 호미.
- 남기봉 (2017). 북한학. 인천: 진영사.
- 라홍숙, 조원희 (2016).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여성들 2.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 박영자 (2004).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아시아여성연구*, 43(2), 297-330.
- 박영자 (2017). *북한녀자*. 서울: 엘피.
- 박찬승 편 (2010). *한국근현대사를 읽는다* (개정 2판). 서울: 경인문화사.
- 백숙현 (2020).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재고찰: 콜론타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전공.
- 북한노획문서 RG242. Box38. File No.200847.
- 북한연구소 편 (1983). *北韓總覽*, 1945-1982. 서울: 북한연구소.
- 북한연구학회(2016). *북한의 정치2*. 서울: 경인문화사, 347-348.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 서형실 (1992a).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여성과 사회*, 3, 198-222.
- 서형실 (1992b). 기획: 일제식민지 현실과 사회주의 여성 허정숙-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19, 278-287.
- 손봉숙 (1982).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4(3), 225-243.
- 송건호, 김도현, 김학준, 백기완, 염무웅, 오익환, 유인호, 이동화, 이종훈, 임종국, 조동걸, 진덕규 (2004). *해방 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 송진희 (2004). 허정숙의 생애와 활동: 사상과 운동의 변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 신영숙 (1996). 일제시기 여성운동가의 삶과 그 특성 연구. *역사학보*, 150, 129-158.
- 신영숙 (2006).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내일을 여는 역사*, 23, 166-177.
- 연구공간수유너머 근대대체연구팀 (2005).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新女性*. 서울: 한겨레신문사.
- 우미영 (2018). *근대 조선의 여행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 안문석 (2016). *북한 현대사 산책 1*. 서울: 인물과사상사.
- 안문석 (2016). *북한 현대사 산책 2*. 서울: 인물과사상사.
- 우미영 (2003). 서양체험을 통한 신여성의 자기 구성 방식: 나혜석, 박인덕, 허정숙의 서양여행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12, 131-160.
- 유지연 (2019). 남북한 여성성의 표상과 통일 지향의 여성사 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 육군사관학교 편 (1999). *북한학* (개정판). 서울: 박영사.
- 이기하 (1976).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국토통일원.
- 이상경 (2010). 부인에서 신여성까지. *근대서지*(2), 146-188.

-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2*. 서울: 역사비평사.
- 이주철 (2001).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연구: 1기-8기 대의원을 중심으로(1848-1990)*. 국사관
론총, 96, 239-269.
- 이화인문과학원 편 (2016). *근대지식과 저널리즘*. 서울: 소명출판.
-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 전경옥, 유숙란, 이명실, 신희선 (2011). *한국근현대여성사: 정치·사회1*. 서울: 모티브북.
- 정병준, 기광서, 김광운, 김보영, 김수자, 노영기, 안김정애, 양영조, 정용욱, 정진아, 정창현.
한국현대사1. 서울: 푸른역사. 2018.
- 정성장 (2011).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
- 정운현 (2016). *조선의 딸, 충을 들다*. 서울: 인문서원.
- 정진석 (2004). *언론과 한국 현대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선중앙통신사 편 (1961). 조선중앙연감 196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조선희 (2020). *세 여자 (특별판)*. 서울: 한겨레출판.
- 태혜숙, 임옥희 (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서울: 여이연.
- 한성훈 (2012). *전쟁과 인민*. 파주: 돌베개, 369-376.
- 허근욱 (1994). 인물탐색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211-232.
- 허근욱 (2001). *민족변호사 허헌*. 서울: 지혜네.
- 허영옥 (2015). *나의 아버지 허헌*. 평양: 평양출판사.
- 허운 (2019). 허정숙 편 ‘세계민주여성운동과 조선민주여성운동(조선문화협회중앙본부, 1947)’ 해제. *근대서지*, 2019(1), 533-542.
- 허정숙 저; 고한준 역 (2018).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서울: 두루미.
- 허정숙 (1986). *민주건국의 나날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허정숙 (1989).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되새기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수기이(허정숙) (1924. 10. 27). *新女性(신여성)들에게를 읽고(續)*. *동아일보*, 6.
- 허정숙 (1924. 11. 3.). *女子解放은 經濟的獨立경제적독립이 根本*. *동아일보*, 4.
- 허정숙 (1926. 10). *뉴욕통신 신여성*, 4(10).
- 허정숙 (1928. 1. 3-5). *婦人運動과 婦人問題研究 朝鮮女子地位는 特殊 1-3*. *동아일보*, 5.
- 허정숙 (1929. 5. 10). *權友會運動의 歷史的地位와 當面任務*. *근우*(1), 12.
- 허정숙 (1949. 12). *공장, 광산, 기타 생산 직장에서의 문화선전 교양사업 강화를 위하여*. *인민*, 4(12), 22-29.
- 허정숙 (1951. 3. 22).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온 세계의 원조와 성원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1.
- 허정숙 (1959. 2. 12). *아랍땅에 꽃핀 친선의 예술*. *로동신문*, 2.

- 問題人物의 問題-朝鮮의 코론타이스트 許貞淑 (1932. 7. 15). 제일선, 2(6).
- 알바니아 인민군협주단은 위하여 허정숙 문화선전상이 환송연 배설. (1955. 10. 28). 로동신문, 3.
- 일본 무용가 이시이 바쿠 부부 허정숙 문화 선전상을 방문. (1956. 10. 17). 로동신문, 7.
- 전국농촌민주조선 선전실장대회에서 한 허정숙 문화선전상의 보고. (1955.6.27.). 민주조선, 2.
- 중국 문화 대표단이 허정숙 위원장을 의례 방문. (1959. 2. 18). 로동신문, 5.
- 許貞淑여사 아버지 許憲을 따라 서양만류. (1926. 5. 30). 동아일보, 3.
- 허정숙 문화선전상이 체코슬로바키아 인형극단 일행을 위하여 환송연 배설. (1955. 6. 20). 로동신문, 3.
- 허정숙 문화선전상 조선 방문 소련 문화대표단을 위하여 환송연 배설. (1955. 8. 19). 로동신문, 3.
- 허정숙 문화선전상 루마니아 <종달새> 가무단을 위한 환송연 배설. (1956. 7. 26). 로동신문, 3.
- 허정숙 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1996. 6. 6). 로동신문, 3.

[국문초록]

허정숙은 남북한 모두에서 독보적 방점을 남긴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 기록에서 저평가되고 왜곡되어 왔으며 인생의 전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 자료를 통해 허정숙의 90여 년 인생 전반을 입체적·다각적으로 복원하고, 북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허정숙은 삶의 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사상과 행적을 크게 변화시켜갔다. 입북 이전의 그는 좋은 환경을 타고났음에도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외를 오가며 계몽주의자·사회주의자·여성해방주의자·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입북 이후 허정숙은 본인이 쌓아온 능력을 바탕으로 가장 오래 현역으로 살다간 여성 권력자이자 조선 여성의 역할모델이 되었다. 그의 사회적 성공은 독보적인 실력, 투철한 사회주의 및 여성주의 사상, 항일여성 투사로서의 상징성, 유연한 처세, 허정숙 가계에 대한 김일성의 신뢰 등으로 가능했다.

북으로 간 인물 중 여성들의 흔적이 여전히 미미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당대 남성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어 생존하고 정권의 중책에 오른 허정숙에 대한 조명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또 현대사의 굴곡을 입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의 인생사는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작은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visiting of Huh Jung–Sook:
a brief look into her life and role in North Korea

Shin, yuri (Ewha Womans University)

Kwon Kyong–Mi D. (Ewha Womans University)

Huh Jung-Sook is one of the first woman socialists who has left an indelible mark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Despite her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s, she is not well known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her defection to North Korea. This study thus aims to explore her life that spans over 90 years, from the colonial era to the postwar Korea, and the reasons why she was able to survive and rise to power in North Korea. In so doing,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tumultuous history of 20th century Korea.

A closer look into Huh's life reveals that she was very quick to adapt to socio-political changes and continuously sought to broaden her thoughts and ideals. She also took prompt actions to actualize her dreams and goals. Even though she was from a wealthy family, she never settled for an easy life and fought for women's rights, socialist reform, and Korea's national independence. Huh defected to North Korea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and became one of the very few surviving female intellectuals and the longest-living revolutionary. Her social success was largely due to her unrivaled intellectual ability, her commitment to socialism and feminism, her usefulness as an exemplary and symbolic North Korean female leader who has also fought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ts for Korea's independence, and especially because she was from Kim Il-sung's trusted Huh family.

To this end, the narrative of one woman and her rise to political power in North Korea reconsiders the fragmented history of modern Korea in which the voices of women and North Koreans are marginalized and under-represented.

[Keywords] Huh Jung–Sook, New Woman, Socialist, North Korean Female Role Model,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

논문투고일: 2021년 7월 15일 / 논문심사일: 2021년 8월 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1일

【저자연락처】 yurishin@ewhain.net

kwon@ewha.ac.kr